

崔曙海 小說論

—가난체험과 가족애를 중심으로—

李 勳*

1.

최서해 소설에 대한 평가는 크게 보아 다음의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서해의 문학은 정말 예술성이 풍부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소재문학이었기 때문에 차차 시대가 지나갈수록 광채를 잃었다”¹⁾는 부정적인 평가와 다른 하나는 “식민지 시대 초기의 민족 궁핍화 현상을 뚜렷하게 부각시키”²⁾고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그것이다. 최서해 소설들에 대한 대부분의 언급들은 이러한 두 개의 관점 중 어느 한 가지에 입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실증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와 더불어 그의 작품들이 지니는 이념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³⁾ 그러나 이념적 요소를 추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그의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동력을 밝혀내야만 이념적 요소의 다양한 측면 속에 숨겨진 전체성이 규명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서해의 소설은 1928, 9년을 전후로 하여 전기와 후기세계로 나누

* 박사과정

- 1) 백철, 『신문학사조사』(신구문화사, 1980), p. 317. 후에 백철은 그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백철, 「한 발 앞선 교육의 의미」 문학사상(1974. 11) 참조.
- 2)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p. 160.
- 3) 한 예로 손영옥, 「최서해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77)를 들 수 있다. 최서해 연구사에 대한 개관으로서는 김기현, 「최서해 연구사 개관—한국 근대소설사의 사료를 결한 고찰」 『우리문학』 연구 5집(우리문학연구회, 1984)이 참고될 수 있다.

어지는데 두 시기 사이의 변모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근본적인 동력을 추출하지 못하고서는 최서해 소설의 전기와 후기세계 사이의 변모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만다. 두 시기의 작품 세계가 아무런 내재적인 맥락이 닿지 않은 각각 다른 세계라는 인식이 온당한 것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올바르게 파악하자면 전기세계에 이미 후기세계로 변모할 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것이 전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최서해 소설의 본질적인 성격을 규명하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최서해 소설이 한국문학사에서 부각시킨 문제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그의 대부분의 소설들이 작가의 체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당시의 소설들이 주로 일본 유학생 출신 작가들의 관념적으로 구성된 세계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소설가로서의 서해의 특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은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체험이 모두 극심한 가난과 관련되어 있고 둘째로 지리적으로 간도지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둘째로 서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 나오는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라는 최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의 모친이나 처자에 대해서 강렬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격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상황의 압력이 그 가족 구성원을 인내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경지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 두 가지 성격을 중심으로 하여 최서해의 소설을 논하고자 한다.

2.

① 최서해의 전기적 사실은, 예를 들어 그의 학력수준과 같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를 생전에 알고 지냈던 문단인들의 회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구성이 가능하다. 그의 전기적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빈농 출신으로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극도의 가난을 체험했다는 점이다. 그의 문우인 박상엽은 그가 겪은 간도에서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어떤 때는 상투잡이가 되어 나무바리 장수도 하여 보고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되놈한테 볼들리어 죽을 고비도 넘겨 보고 두부장수도 하여 보고 ××단에 따라 다니노라고 종을 메고 눈 쌓인 얼음 벌판도 헤메이다가 종에 맞아 죽은 동지의 시체를 혼자서 얼음 벌판에서 밤을 새워가며 지켜보기 등등—이러한 몇 가지의 실패를 보더라도 서해는 한 개의 「소설적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문단에 등단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1929년 매일신보에 입사하고부터는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해의 전기적 사실을 살펴볼 때 주목할 것은 그의 생활 자체가 바로 소설적인 재료가 될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또 그것은 1920년대 식민지 현실의 궁핍화 현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1920년대는 1918년에 끝난 토지조사사업과 3·1운동 후의 소위 문화정치의 실시로 한민족의 궁핍화가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에 대응하여 일본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반제운동이 각 부문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서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참담한 삶의 형식은 동시에 민족 대다수의 성원이 겪었던 현실의 고통으로 치환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 식민지 사정을 서해의 소설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홍이섭의 글⁵⁾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당연하다 하겠다.

1920년대는 궁핍형 소설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유형의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⁶⁾ 이들 중에서 서해의 작품들은 극한적인 상황에 이른 가난

4) 박상엽, 「서해와 그의 극적 생애」 『조선문단』(1935.8), p.162.

5) 홍이섭, 「1920년대의 식민지적 현실—민족적 궁핍 속의 최서해」 『한국정신사서설』(연대출판부, 1975)

6)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pp.223~47.

의 상태와 그것에 직면한 인간들의 감정적인 반응과 공격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 중에서 서해의 인물들은 본질적으로 착한 마음을 갖고 현실을 최대한 긍정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의 노력을 수용하지 않은 현실의 벽 때문에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인물들은 대체로 울거나, 불, 피 등의 격렬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된다. 심지어는 발광하기도 한다.

그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울음은 그의 문체를 “울음의 문체”⁷⁾라고 명명하게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내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탈출기」(1925)에서 ‘나’는 아내가 “길바닥에 내던진 꿀젖질을 주워 먹은” 사실을 알고 “느껴가며 눈물을 흘린다.”⁸⁾

나는 이를 갖고 주먹을 쥐었다. 그러나 눈물은 여전히 흘렀다. 아내는 말없이 울고 섰는 내 곁에 와서 손으로 치마끈을 만져거리며 눈물을 떨어 뜨린다.⁹⁾

「박돌의 죽음」(1925)에서는 “뒷집에서 버린 고등어 대가리를 삶아 먹구서”¹⁰⁾ 아들이 죽자 그의 모친은 “울면서 가슴에 쓰러”¹¹⁾진다.

겉에 얹은 그 어머니는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 없이 꺾꺾 흑흑 느껴 울다가 도 박돌의 낮에 뺨을 대고는 울고, 가슴에 손을 넣어 보곤 한다.¹²⁾

「기아와 살륙」(1925)의 경우 아내가 중병이 들었지만 약을 지어다 주지 못한 남편(경수)은 “모든 설움이 복받쳐서 눈물에 앞이 캄캄”¹³⁾해진다.

7) 김주연, 「울음의 문체와 직접화법」 『문학사상』(74. 11)

8) 「탈출기」 『한국대표단편문학전집』 7, (정한출판사, 1975), p. 37, 앞으로 『전집』 7로 표기한다.

9) Ibid., p. 38.

10) 「박돌의 죽음」 『전집』 7, p. 61.

11) Ibid., p. 62.

12) Ibid., p. 62.

13) 「기아와 살륙」 『한국단편문학전집』 24, (정음사, 1973), p. 159, 『전집 24』로 표기한다.

약국 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이마를 찡그리면서 저편 방으로 들어간다. 경수는 모든 설움이 북받쳐서 눈물에 앞이 캄캄하였다. 일종의 분노도 없지 않았다. 세상은 너무도 자기를 학대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새삼스럽게 슬프고 쓰리고 원통하였다. 방안에 걸어놓은 약봉지까지 자기를 비웃고 가라고 쫓는 것 같았다. 그는 소리 없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면서 약국문을 나섰다.¹⁴⁾

위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은 장면은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나온다.

그런데 이들의 울음은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체념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울기 전의 행위와는 전적으로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주곡과 같은 것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주인공들은 울고 난 후 부정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과 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격렬한 행동을 유발시킨다.

문을 내다보는 그의 두 눈은 유난히 번득였다.

이 때 그의 눈 속에는 보이는 것이 있었다.

낮인가? 밤인가? 밤 같기는 한데 어둡지는 않고 낮 같기는 한데 별이 없는 음침한 곳이다. 바람은 분다 하나 나뭇가지는 떨리지 않고 비는 온다 하나 빗소리는 커녕 빗발도 보이지 않는 흐리머리한 빛속이다. 살이 퍼둥퍼둥하고 얼굴이 검붉은 자가 박돌의 목을 매어 끌고 험한 가시밭 속으로 달아난다.¹⁵⁾

그의 눈에는 새로 보이는 괴물이 있다. 그 괴물들은 탐욕의 붉은 빛이 어리 어리한 눈을 날카롭게 번쩍거리면서 철관으로 경수 아내의 심장을 꼭 찢어놓고는 검붉은 괴물 쭉쭉 빨아 먹는다.…… 눈깔이 벌건 자들이 검붉은 손으로 자기의 팔다리를 꼭 잡고 철관으로 자기의 염통괴물 빨면서 흥소를 친다. 수염이 많이 나고 낮이 시뻘건 자는 학살이틀 집어서 바작바작 깨물어 먹는다. 경수는 악 소리를 치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한 환상이었다.¹⁶⁾

위에서 보듯, 환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격렬하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주인공들은 살인이나 방화를 일

14) Ibid., p. 159.

15) 「박돌의 죽음」 『전집』 7, p. 64.

16) 「기아와 살육」 『전집』 24, p. 161.

으키게 된다.

그런데 주인공들의 극단적인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막다른 행동으로 즉 부정적인 현실에 개인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생의 충동이며 확장”¹⁷⁾이라는 추상적인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홍염」(1927)에서 나타나는 방화는 주인공 문서방에게 다음처럼 현실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척결한다는 보다 보편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억만년 변함이 없을듯 하던 별까지 녹아내릴 것같이 검은 연기는 하늘을 덮고 붉은 빛은 깜깜하던 끝까지에 차 흘러서 어둠을 기회로 모아들었던 은갖요 피를 몰아내는 것 같다.¹⁸⁾

따라서 문서방은 지주인 인가를 죽이고, 인가에게 빛 대신 빼앗긴 딸을 품안에 안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데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딸을 되찾았다는 데서 오는 개인적인 감정만은 아닌 것이다.

그 기쁨! 그 기쁨은 딸을 안은 기쁨만이 아니었다. 적다고 믿었던 자기의 힘이 철통같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요구를 채울 때 사람은 무한한 기쁨과 충동을 받는다.

불길은—그 붉은 불길은 의연히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처럼 하늘하늘 울랐다.¹⁹⁾

주인공들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은 가난한 사람들의 부자에 대한 그것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계급의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반응양식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돌의 죽음」에서 박돌의 모친이 자식을 진찰해 달라는 청을 매정하게 거절한 김초시의 “가슴을 타고 앉아서 그의 낮을 물어 뜯”²⁰⁾었을 때 그 광경을 목도한 마을 사람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자들도 있었다.

“그까짓 놈(김초시) 죽어도 싸지! 못할 짓도 하더니.”

17) 「탈출기」『전집』 7, p. 41.

18) 「홍염」『전집』 24, p. 216.

19) Ibid., p. 218.

20) 「박돌의 죽음」『전집』 7, p. 66.

이렇게 혼잣말처럼 뇌이는 사람도 있다.²¹⁾

「기아와 살륙」 「홍염」에도 위의 인용부분과 유사하게 주인공과 자신들의 처지를 동일시하는 동네사람들의 대화가 나온다. 경수의 모친이 ‘되놈’들이 키우는 개에게 물려 죽었을 때 동네사람들은 “이놈(지나인)의 땅에 사는 우리가 불쌍하지”²²⁾라고 말하며, 문서방이 인가에게 딸을 빼앗겼을 때도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도 같은 신세임을 한탄한다. 그러나 동네사람들의 이러한 동정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이고, 유대감을 형성하여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힘으로써 작용하지 않는다. 만약 제급의식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에 대립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중심적으로 그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해는 가난의 상태는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 가난을 산출시켰던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덜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홍염」이 그의 작품 중에서 최대의 걸작으로 평가²³⁾되는 이유의 일단은 정면으로 가난의 사회, 경제적 토대를 묘사한 데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서해 문학의 자연발생적인 반항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주인공들의 행하는 공격적인 행동의 근거가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생의 충동, 확장이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놓임으로써—물론 이 말은 작품세계가 추상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구체적인 전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증하는 작품으로서 「고국」(1924)을 들 수 있다. 「고국」의 주인공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그는 “항상 알지 못할 만 세상을 동경하고”²⁴⁾ “어찌하여 울게 되었는지 자신도 의식치 못하며”²⁵⁾ “항방없이 표랑하”²⁶⁾며 본국으로의 귀국도 “알

21) Ibid., p. 66.

22) 「기아와 살륙」 『전집』 24, p. 164.

23) 김윤식, 김현, op. cit., p. 161.

24) 「고국」 『전집』 24, p. 31.

25) Ibid., p. 31.

26) Ibid., p. 32.

수 없는 무엇이 나를 이끈 것”²⁷⁾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국」의 전망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것은 주인공 나운심의 가족이 등장하지 않는 사실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홍염」 「기아와 살육」 「박들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이면에는 언제나 가족에 대한 강한 애정이 존재함으로써, 전망의 부재라는 약점과 더불어 “반작용의 방향이 과연 정확한 것이었느냐 하는” 문제점²⁸⁾에도 불구하고 소설적인 맥락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서해의 작품 중에서 “프로문학적 제스처”²⁹⁾를 보여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사」(1926)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 이 유형에 속하는 것들은 관념적인 낙관론에 현저하게 기울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의사」는 구제의원을 개업한 김 의사가 정반대의 처지에 있는 두 환자 즉 영양부족으로 병이 난 사람과 “너무 먹고 운동이 부족해서”³⁰⁾ 병을 얻은 부자에게 왕진감으로써 “배운 의술은 결국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수천만의 진정한 병인을 못 건지고 조그마한 있는 이의 종놈”³¹⁾인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그는 번민 끝에 자기의 병원에 불을 지르고 모스크바로 떠난다. 이상 간추린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실상과 두 계급 사이의 갈등이 구체적인 인물이나 행동을 통하여 묘사되지 못하고 왕진감을 때의 몇 마디의 대화를 제외하고서는 의사의 관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끝 부분에서 보이는 낙관론은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만다.

밤 열시 봉천행에 몸을 싣은 김 의사는 연방 차창으로 서울 거리를 내다보며 빙긋이 웃었다. 그는 알 수 없는 기꺼운 충동에 온몸이 들떠거렸다. 그의 눈 앞에는 모스크--가 보이고 장래의 조선이 아름답게 보였다.

27) Ibid., p. 32.

28)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성문각, 1982), p. 220.

29) 손명옥, op. cit., p. 31.

30) 「의사」 『최서해문학전집』(문학과 지성사, 1987), p. 189, 앞으로 『전집』
상으로 표시한다.

31) Ibid., p. 190.

“아— 감옥을 벗었다. 자유의 몸!”

그는 또 한 번 팔을 죽 펴 보았다. 무엇이든지 할 것 같다.³²⁾

끝 마무리가 「容身難」(1928)도 「의사」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주의자인 조인현이 중병으로 아내가 죽자 “그에게 그가 바라는 욕망이 주어”³³⁾졌다고 생각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도시로 가는 차중에서의 과거 회상이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도 구체성을 결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다음과 같은 관념적인 구호 비슷한 서술이 전면에서 드러날 뿐이다.

‘응 나는 싸우라! 사람은 고통을 벗어나려고 함으로써 귀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싸워 이김으로써 귀한 것이다. 고통과 싸워서 고통을 이길 수는 있어도 그것을 벗을 수는 없으니 사람은 어느 때나 사람이라 현실을 벗을 수 없는 까닭이다. 나는 싸우라.’

그는 이렇게 가슴속으로 뇌이면서 또 한 번 가슴을 쳤다.³⁴⁾

「아내의 자는 얼굴」(26)에는 펄잡, 의복, 쌀을 얻지 못하여 걱정인 가장 기선이 “어떤 사람은 삼대요건이 그 뜻수에 넘어서 걱정인데 어떤 사람……나 같은 놈은 뜻수에 못 차기는 고사하고 아주 텅 빈 판이며 X스의 자본론을 읽지 않아도 X스의 머리를 가지게 된다³⁵⁾”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작품은 오히려 계급의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부부의 “순진한 정”³⁶⁾을 통하여 물질적인 가난을 극복하는 정신적인 여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러한 독법이 옳은 것이라면 위에서 본 주인공의 생각은 우연적인 삽화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별 의미를 띠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서해는 궁핍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반응을 통하여 관념적인 이념보다는 등장인물의 정서적인 반응과 그것에 근거한 행동을 중시함으로써 독자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공 요인

32) Ibid., p. 191.

33) 「용신난」『전집』上 p. 397.

34) Ibid., p. 398.

35) 「아내의 자는 얼굴」『전집』上, p. 318.

36) Ibid., p. 322.

의 하나로 서간체 형식의 채용을 들 수 있다.

서간체 형식은 송신자(주인공)—수신자(독자와 동일하다)라는 직접적인 대면 방식을 취하는 것인데, 수신인으로 상정된 인물이 주인공의 사고나 행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거리감이 최대한 대로 좁혀져서 관념적인 설명이 생략되더라도 주인공의 심리를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그런데 1930년에 발표된 「누이 동생을 따라」는 이러한 서간체 형식을 변형시키고 있는데, 이 점은 후술할 터이지만, 그의 후기 세계의 작품 성격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요한다. 이 작품은 주인공(송신자)→나(작중화자, 제 1 수신자)→독자(제 2 수신자)라는 전달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인공이 작중화자인 ‘나’에게 그의 고단한 인생역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탈출기」에서와 같이 송신자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작중화자의 매개를 통해 전달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감이 생기는데, 그 결과로 초기 작품의 격렬성이 완화된다. 이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창기로 전락한 누이 동생을 찾아 나선 주인공이 그녀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역시 자살하고 만다는 줄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바 운명론적인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인공의 행동은 전기 작품 특히 간도를 무대로 하는 것들의 공격성과는 판이한 세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작중화자인 ‘내’가 여행 중이라는 사실이 암시하듯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주인공에 대한 동류의식이나 현실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찌 하다가 단소 불던 사람(주인공 : 인용자)의 내력을 듣”³⁷⁾게 되고 그 얘기를 들은 다음날 나는 동태 온천으로 떠나는 것이다. ‘다’는 주인공의 고생담이나 남매의 애담은 사연에 초연한 방관자적 자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진지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처럼 서해는 1928, 9년을 전후로 하여 식민지 시대의 중심적인 문제에서 빗겨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후기 사이의 변모는 먼저 등장인물의 면모에서 분명한데, 즉 전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

37) 「누이 동생을 따라」『전집』 24, p. 197.

로 농민과 노동자층인데 비해서 후기에는 주로 잡지사나 신문사에 취직한 인텔리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이들 인물들이 펼쳐 보이는 세계도 판이한데, 후기 세계에서는 여전히 가난이 배경으로 존재하면서도 중심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고 가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상사나 관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이 전면에 나선다.

후기 작품들 중에서 입을 만한 소설들을 발표 순서에 따라 열거하면 「갈등」(1928) 「부부」(1928) 「轉機」(1929)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1929) 과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는 「누이 동생을 따라」 등이다.

「갈등」의 등장인물은 부부와 식모이다. 이 작품은 지식인인 ‘내’가 “중산계급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심리”³⁸⁾를 해부하고 있는데 갈등의 발단은 “세숫물까지 남의 손을 빌어서 하수구 구멍에 버리려는 귀족적 자제들”³⁹⁾을 혐오하면서도 식모를 두게 된 데서 생긴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는 하층민에 대해서 동정을 느끼고 그들의 해방을 말하면서도 객관적으로는 식모를 거느림으로써 편안함을 느끼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인 것이다. 이 작품은 지식인을 작중화자로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그의 심리를 분석함으로써 일정한 정도의 소설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결말에서 이 갈등을 철저히 추구하지 못하고 근거없는 낙관론에 도달하고 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낙관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념적인 구호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오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세상을 낙관하라! 삶을 사랑하라! 거울은 지나간다. 봄빛이 이제 찾으려니 한강의 얼음과 북한산의 눈이 녹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이다.’

어머를 보는 내 가슴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나는 나로도 모를 굳센 힘을 느꼈다.⁴⁰⁾

이 결말 부분에서 ‘그대들’이란 “어멈계급”⁴¹⁾을 지칭하는 것인데 여

38) 「갈등」『전집』 7, p. 149.

39) Ibid., p. 150.

40) Ibid., p. 173.

41) Ibid., p. 173.

기에서 보듯 지식인의 내면적인 갈등을 말하다가 돌발적으로 삶을 낙관 하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족처럼 생각된다.

지식인의 가난한 살림을 배경으로 하여 역시 지식인인 친구의 죽음에서 느끼는 절망과 허무의식을 그리고 있는 「전기」의 결말도 「갈등」과 흡사한데, 여기에서도 갑작스러운 논리의 비약이라는 인상을 얻게 된다.

그는 그도 모를 충동에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 놓았다.

흘러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맑은 바람은 악동하는 그의 새 생명을 무한한 세계로 끌어 올리는 듯하였다.⁴²⁾

두 작품의 결말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나로도 모를 굳센 힘” “그로도 모를 충동”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바 지향점의 부재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낙관적인 사고가 본질적으로 돌발적인 충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서해 소설이 어떤 경우 프로문학적인 편린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령은 자연발생적인 반항임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부부」를 들 수 있다. 신혼부부를 거슬리게 하는 쥐를 잡는 이야기가 지루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결국은 남편이 쥐를 잡아 잔인하게 죽이고 마는데 “임신 중에 부부가 살상하면 어린애에게 해롭다는 것”⁴³⁾을 들어온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원망한다. 이로 말미암아 남편은 모든 것이 이해에 지배됨을 인식하게 된다.

남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자기의 생을 더 충실히 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생의 법칙이라 하여 감히 행하고도 후회치 않지만 남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에 손실이 있다면 그때에는 그것을 불인(不仁)이라 느끼고 후회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도덕이 아닌가? 선악의 비판이 그렇게 갈리고 인과율이 또한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닌가? 오오 모든 것은 이해에 지배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때 이제까지 가졌던 그의 인생관은 변화되었습니다.

“언제나 고른 세상이 오우?”⁴⁴⁾

42) 「전기」『전집』 7, p. 273.

43) 「부부」전집 上, p. 421.

44) Ibid., p. 422.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이 정도의 결론을 얻기 위하여 그처럼 많은 瑣末事를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하는 반문”⁴⁵⁾이 생길 정도로 작가는 의미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독후감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소설의 의미는, 굳이 그것을 찾자고 한다면, 위에서 인용한 소박한 깨달음에 있다가 보다는 가난한 신혼부부의 자족적인 분위기를 그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또 한 가지 후기 작품의 성격으로서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이나 「누이 동생을 따라」에서 나오는 운명론적인 관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의 작중화자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나’ 자신도 그와 같은 운명의 길을 밟을 존재임을 깨닫는다. 따라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로되 모두 같은 운명이란 궤도 위에 선 것을 그윽히 느낀”⁴⁶⁾다.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체념의 상태로 살아가는 인물들은 수시로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또 그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다.

그런데 서해가 그의 좋은 작품에서 개인적인 가난의 체험을 식민지 현실에서 겪는 하층민의 보편적인 그것으로 치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체험이 지니는 보편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서민들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을 예증해 주는 작품이 「저류」(1926)인데, 이 작품은 서민들 사이에서 널리 유포된 속담, 설화를 차용하고 있다. 즉 흉년이 닥쳐 민심이 흉흉한 시기에 동네 노인들이 모여서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아기장수 전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민간에 널리 퍼진 “아기장수 전설은 신분적 제한에 의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평민적 영웅의 탄생—갈등—죽음, 혹은 탄생—갈등—재생의 좌절—죽음으로 요약된 삶을 진술하고 있다.”⁴⁷⁾ 그런데 「저류」에서 재창조된 아기장수 이야기는, 위에서 요약한 일반적인 구조와는 달리 탄생—갈등—잠적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재창조에서 주목할 것은 서해가 민간에 알려진 전설의 비극적 결말을 거부하고 아기장수가 잠적하는 결말을 만듦으로써 미래의 활동 가

45) 채훈, 「최서해 연구—소위 제 2계열 작품들 중심으로」 『숙대논문집』18, (1978), p. 309.

46)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 『전집』 7, p. 187.

47) 심정섭, 「전설의 문학적 구조—아기장수 전설을 중심으로」 『문학과지성』 27호(1977), p. 253.

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설화가 설화 속의 배경과 유사한 궁핍한 현실에서 이야기됨으로써 현실성을 얻게 되는데, 이 작품이 암시하고 있는 현실변혁의 실현 가능성은 프로문학의 이념을 수용하고 있는 작품의 결말에 보여주는 하층민과의 동류의식이나 낙관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놓이는 것이다. 또 이 작품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여타의 작품과는 다르게 등장인물이 가족구성원이 아니라 서민집단이라는 사실이다.

② 서해 문학의 간도 체험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주인공이 펼치는 격렬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대륙적 기질이다. 이러한 면모는 일찌기 염상섭 등에 의해서 “작품에 힘이 있다”든가 “대륙적 기분이 늘 있다”⁴⁸⁾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1919년 이후 간도를 중심으로 한 만주에서의 독립투쟁이라는 저항의 측면과 간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겪었던 극도의 궁핍이다. 물론 이 두 번째의 측면은 토지조사 사업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이 토지를 잃고 간도 등지로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독립투쟁의 측면과 관계가 있는 소설에는 「고국」 「탈출기」 「항수」(1925) 「폭풍우 시대」(1928) 등이 있는데, 이 작품들의 인물들은 독립단에 가입하거나 만주 지방에서 교육사업에 열성을 다한다. 「고국」의 나운심은 한 때 독립군의 일원이 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그의 행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기쁨을 느끼기도 했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군인생활이 염증이 나”⁴⁹⁾는 것은 당연한 결말이라고 할 것이다.

「탈출기」는 「고국」과는 달리 의식적인 계획 아래 독립운동에 뛰어들기 위해 가족을 떠나는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참담한 고생을 겪은 끝에 자신이 “험악한 제도의 희생자”⁵⁰⁾임을 깨

48) 「합평회」 『조선문단』(1925.6), p. 123, 124.

49) 「고국」 『전집』 7, p. 32.

50) 「탈출기」 『전집』 7, p. 41.

달고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들, 험악한 이 공기의 원류를 쳐부수어야”⁵¹⁾ 한다고 하며 독립단에 가입하는데, 이러한 결단은 관념적인 구호 때문에 약간 어색한 감이 있는 대로 필연성을 지닌다.

둘째, 조선인이 간도 지방에서 겪는 가난과 관련된 체험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식민지 정책으로 인한 조선인 특히 농민의 이주현상과 관련되는 측면만을 살피고자 한다.

간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 자체가 식민지가 되어 버린 조국에서의 삶의 궁핍상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국에서의 생활 곤란 때문에 간도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되며, 「탈출기」에서 ‘내’가 “고향을 떠나 간도로 간 것은 너무도 절박한 상황에 시들은 몸에 새 힘을 얻을까 하여서⁵²⁾이다.

「홍염」에서 문서방의 이주 이유는 다음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언제나 이놈의 소작인 노릇을 면하여 볼까? 경기도에서도 소작인 생활 십년에 겨족만 먹다가 그것도 자유롭지 못하여 남부여대로 딸 하나 앞세우고 이서간도로 찾아들었더니 여기서도 그네를 맞아 주는 것은 지광살이(소작인)였다.⁵³⁾

객관적인 현실의 부분과 작품 전체와 절연된 채로 그 일부분 사이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일은 문학작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미학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작업이 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주의 배경을 살피는 것은 세부적인 현실 반영이라는 문제에 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작품 전체에 주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작품 전체에 작용하는 기능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식민지 지배체제의 가혹한 경제적 수탈을 암시하고, 따라서 간도에서 겪는 극도의 궁핍은 개인에 한정

51) Ibid., p. 41.

52) Ibid., p. 35.

53) 「홍염」『전집』 24, p. 198.

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외세에 빼앗긴 모든 하층민들의 공통적인 체험으로 보편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간도를 배경으로 삼는 작품들이 일정한 유형성 즉, 살인, 방화 등으로 결말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 즉 참담한 지경에 이른 가난의 상태를 제시함으로써 결말에서 일어나는 공격적인 행동들이 필연성을 지니게 된다거나, 「홍염」의 경우 가난의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격렬한 행동 양식과 모친이나 처의 등장에서 보이는 여성편향⁵⁴⁾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될 것이다.

3.

서해의 대부분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공간적인 거리에 관계없이 애정을 토대로 하여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공격적인 행동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가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자리잡고 있다. 그들은 특히 남성이나 그 모친은 언제나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책임감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그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들인데, 이러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인 지주에게 딸을 빼앗기거나 기아와 병고를 벗어나려는 성실한 노력에 대해 주위의 세계가 냉담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가족에 대한 애정은 오로지 자신들의 가정에만 눈을 돌리는 이기적인 태도인 것은 아니다.

서해 소설의 남성 주인공은 대체로 가족에 대한 의무와 자신이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적인 행위 사이에 갈등을 느낀다. 「탈출기」의 수신인인 김군은 작중화자의 독립단 입단을 다음처럼 질책하고 있다.

군은 군의 가정에서 동량이다. 동량이 없는 집이 어디 있으랴? 조그마한 고통으로 집을 버리고 나선다는 것이 의지가 굳다는 박꾼으로서는 너무도 박약

54) 김윤식, 김현, op. cit., p. 161.

한 소위이다. 군은 ××단에 몸을 던져 ×선에 섰다는 말을 일전 황군에게 듣기는 하였으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그것을 시인할 수 없다. 가족을 못 살리는 힘으로 어찌 사회를 ‘진지라.’⁵⁵⁾

「탈출기」는 위와 같은 비난에 대한 해명인데 ‘나’는 늙은 모친이 “나무를 씹고 젊은 아내가 방아를 찧을 때 나의 피는 끓었으며 나의 눈은 눈물에 흐려질”⁵⁶⁾ 정도로 “정애가 있는 사람이다.”⁵⁷⁾ 그리고 자신의 회생과 수모를 감수할 수는 있지만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늙은 어머니와 아내가 배를 주리고 남의 멸시를 받는 것”⁵⁸⁾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결국 ‘나’는 공적인 행위를 지향하는데 그것은 전체가 부정적인 것일 때, 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은 개선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설사 가능하다고 하여도 별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다.

「기아와 살육」의 경수의 경우도 「탈출기」의 ‘나’와 같은 갈등을 겪는 처지에 놓인다. 그러나 그는 대의에 몸을 바치기 위해 자기가 떠난 후 “식구(자기에게 목숨을 위탁한)의 정상이 눈앞에 선히 보이는 듯할 때면 더 참자! 하는 의지가 끊는 감정을 누”⁵⁹⁾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운동에 나서기에는 “용기가 부족이라는 것보담 식구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⁶⁰⁾기 때문에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다.

서간체로 되어 있는 「餓死辭」(1927)는 「탈출기」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나’는 고향에서 모친과 함께 살면서 면서기로 호구를 유지하지만, 점차로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설”을 “절실히 느껴”⁶¹⁾ “적자가 되자, 자연도태를 받지 말자, 시대적 인물이 되자.”⁶²⁾는 꿈을 안고 집을 떠나 서울로 향한다. 주인공은 이때 “인류의 큰 길을 어진듯이 두렵고도 가슴이 찌르르하여 심장이 찢기는 것 같”⁶³⁾음을 느낀다.

55) 「탈출기」『전집』 7, p. 34.

56) Ibid., p. 36.

57) Ibid., p. 34.

58) Ibid., p. 36.

59) 「기아와 살육」『전집』 24, p. 153.

60) Ibid., p. 153.

61) 「전아사」『전집』 7, p. 135.

62) Ibid., p. 135.

63) Ibid., p. 137.

위 몇 작품에서 보았듯이 지식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을 갖춘 인물들은—서간체 형식을 택하여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거나 해명하는 것 자체가 작중화자의 지적 능력을 암시하는 것이다—가족에 대한 애정과 사회적인 행동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기아와 살육」 「홍염」 「큰물 진 뒤」 「박돌의 죽음」에서는 결말이 개인적인 반항으로 끝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갈등등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주인공의 의식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간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20년대 상반의 한국 문단의 작품 수준을 놓고” 볼 때 “당시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뒤지지 않고 상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⁶⁴⁾ 이유는 무엇보다도 극도의 궁핍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위가 여성편향 혹은 가족에 대한 애정으로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후자는 전자의 갑작스러움이나 비합리적인 인상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그것이 필연적인 결말로 보이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서해 소설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루는 것은 극심한 가난의 체험 혹은 거기에서 나오는 공격적인 행위와 가족에 대한 강렬한 애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이 두 개의 측면이 끝까지 갈등을 일으키며 균형있게 나타날 때, 앞에서 말한 바대로 간도 체험을 다룬 작품들이 대개 그러한데, 좋은 작품이 된다. 그리고 전자만을 강조할 때 프로문학의 이념을 관념적으로 드러내게 됨을 볼 수 있다. 프로문학적인 제스처어를 보인 「의사」의 경우, 주인공인 의사에 딸린 가족구성원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위의 명제를 염두에 둘 때 의미심장한 바가 있다. 사회주의 활동을 위해 도시로 나가는 인물을 그린 「용신난」의 경우에도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주인공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작품이 관념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는 것은 관념을 산출하게 하는 토대로서의 구체적 현실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해에게 있어서 구체적 현실은 대체로 가족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하여 파악되는 것임을 생각할 때 가족구성원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의 객관적인 성질은 무시될 수밖에

64) 백철, 「한 발 앞선 고독의 의미」 『문학사상』(1974. 11), p. 241.

없는 것이다. 또 두 번째의 측면 즉 가족에 대한 애정만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 대체로 후기의 작품들이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가난은 단순히 작품의 부수적인 배경으로만 존재하게 됨으로써 식민지 시대의 중심적인 문제와는 동떨어진 부부 사이의 자족적인 분위기라든지 허무주의나 운명론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작품들을 전기의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무엇보다도 결여되어 있는 것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이다. 따라서 후기 작품들의 결말에 나오는 새로운 깨달음이나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⁶⁵⁾은 사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두 측면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두 번째의 측면이 언제나 긍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고는 볼 수 없다. 즉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배제되고, 작품의 세계가 가족에 한정됨으로써 그 세계의 폭이 협소하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이점은 가난의 현장을 뛰어내려 잘 그리고 있으면서도, 「홍염」을 제외로 하면, 그 가난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제시하는 데는 별 성공적이었다는 사실과도 맥락이 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물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위에서 언급한 소설의 약점을 산출하는 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물론 비교적 일찍 생애를 마쳤다는 전기적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서해는 장편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⁶⁶⁾ 식민지 시대에 쓰여진 우수한 장편들—「삼대」「태평천하」「대하」 등이 모두 세대간 혹은 가족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맺고 있는 사회, 경제적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소설의 세계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서해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약점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4.

본고는 서해 소설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

65) 「전기」 op. cit., p. 273.

66) 그의 장편은 한 편이 있는데, 이 장편소설 즉 「호외시대」(1930. 9. 20~31. 8. 1)는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이 ‘자선과 보은’의 세계만을 펼치고 있을 따름이다. 이 소설의 개요는 손영욱 op. cit., pp. 37~8을 참고할 것.

으로 작품 세계를 살펴 보았다. 이 두 가지 측면은 가난의 체험과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이다.

최서해는 그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작품에 수용하고 있는데, 체험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가난이다. 그는 가난의 구체적 실상을 보여 주고 그것에 대면하는 등장인물의 정서적 반응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채택된 장치가 서간체 형식이다. 서간체 형식에서 수신자는 주인공의 사정을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서의 직접적인 토로가 어색하지 않게 된다.

주인공은 대체로 극도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울거나 불이나 피와 같은 격렬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 결말은 살인과 방화 같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1928, 9년을 기점으로 하여 작품세계의 변모가 눈에 떠는데, 이 때에도 여전히 가난은 작품의 배경으로 나오지만, 가난의 문체가 중심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모는 서간체 형식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서해는 간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들 작품들이 살인, 방화라는 공식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바탕에 가족에 대한 강력한 애정이 놓여 있어서 독자의 정서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에 나오는 가족은 대체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고 최소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강한 가족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간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대부분의 좋은 작품들은 가난의 체험으로 인한 격렬한 행동과 가족에 대한 강한 애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후자가 작품의 중심이 될 때—후기의 세계가 그러하다—가족 내부의 사소한 일상적 일들이 작품세계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질적으로 뛰어난 작품의 경우에도 이러한 애정이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무시되고 그 구성원들 각자가 관계를 맺는 사회, 경제적 사실이 취급되지 못하는 것이다. 서해서 부분적으로 단편에서 성공하고, 좋은 장편소설을 쓰지 못한 이유의 일단은 이러한 문제점과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